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거나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2. 지정받은 사항을 위반하여 업무를 행한 경우
- 3. 제12조제5항에 따른 지정기준 등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거쳐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지정 취소, 업무정지의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와의 연계) 지원센터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의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를 구성하는 기관과 연계 및 협력하여야 한다.

제15조(지원센터에의 연계) ①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의 각급 학교의 장(이하 이 조에서 "학교장"이라 한다)은 소속 학교의 학생이 학교 밖 청소년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②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9조에 따른 지역사회 청소년통합지원체계에 포함된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이하 이 조에서 "단체장"이라 한다)은 지원이 필요한 학교 밖 청소년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청소년에게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을 안내하고 지원센터를 연계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학교 밖 청소년을 지원센터에 연계하는 경우 학교장, 단체장 및 지원센터의 장은 해당 청소년에게 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범위, 보유 및 이용 기간, 파기방법을 고지하고 동의 받은 후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 1. 학교 밖 청소년의 성명
- 2. 학교 밖 청소년의 생년월일
- 3. 학교 밖 청소년의 주소
- 4. 학교 밖 청소년의 연락처(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

-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안내 및 지원센터의 연계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제16조(비밀유지 의무)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관계 기관의 협조)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거나 조치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제18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① 이 법에 따른 여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② 여성가족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19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지원센터가 아니면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벌칙) 제16조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에 이용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1조(과태료) ① 제19조를 위반하여 지원센터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여성가족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징수한다.

## 5

### 대한민국을 텅텅 비우고 난 뒤: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떠난 청년들의 노동과 삶 이규호

## 5

대한민국을 텅텅 비우고 난 뒤: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떠난 청년들의 노동과 삶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쏟아지는 다양한 한국사회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라기 보다는 고도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풀어나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조한혜정 2006, 장경섭 2009) 그 중 청년실업을 대표한 청년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재생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의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황만 더욱 악화된 채 노동유연화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만을 증명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혀겠다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의 노동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박탈하여 다른 이에게 주든가,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대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일자리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90년대 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러한 노동유연화 정책은

## 1. 들어가며

90년대 후반 경제위기 이후 쏟아지는 다양한 한국사회의 위기는 단순히 경제적 위기라기 보다는 고도 압축적 근대화를 거치면서 한국 사회가 풀어내지 못했던 다양한 영역의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드러나는 것이었다.(조한혜정 2006, 장경섭 2009) 그 중 청년실업을 대표로한 청년의 위기는 2000년대 이후 한국 사회의 재생산 구조가 얼마나 취약한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다. 여러 영역에서의 많은 저항에도 불구하고 기업과 정부는 노동 시장의 유연화를 통해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으나, 상황만 더욱 악화된 채 노동유연화가 절대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것만을 증명했다.

해고를 쉽게 하고 비정규직을 확대하여 청년에게 취업의 기회를 넓히겠다는 것은 사실상 누군가의 노동을 훨씬 더 ‘수월하게’ 박탈하여 다른 이에게 주든가, 상대적으로 직업 안정성이 높은 정규직 대신 임금이 낮은 비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은 사실상 일자리 확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90년대후반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이러한 노동유연화 정책은 더욱더 확대되었지만 청년실업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일자리가 늘어나지는 않은 채 불안정성만 높이고 있지만 정부와 기업을 주축으로 한 신자유주의적 기조는 변화하지 않고 있는 상태이다.

노동의 유연화가 해결방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지속적으로 광범위하게 추진되고 있고, 따라서 국내의 노동 기회 확대와 삶의 안정성의 구축으로 이 문제에 대한 접근으로의 전환은 요원한 상태이다. 한편으로는 “청년실업”을 국내에서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보다는 외부를 통하여 해결을 시도하는 방향을 잡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은 2015년 3월 중동 국가 순방 이후 청와대에서 열린 한 행사에서 “대한민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한번 해보라. 다 어디 갔냐고, 다 중동 갔다고...”라고 언급하면서 청년 실업 문제에 있어 정부의 역할을 국내의 노동 시장의 안정성 구축과 확대보다는 해외 취업을 앞선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발언을 한 바있다.

이에 발맞추어 고용노동부는 청년 해외취업 지원 사업인 ‘K무브’ 정책을 국정 과제로 삼아 자원을 쏟아 붓고 있으며, 대한무역진흥공사인 KOTRA 또한 해외 취업 알선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관료주의적 성과주의가 강조되고 있는 상태에서 해외 취업은 단순히 그 숫자로만 기록되어 성과의 지표로만 사용될 뿐 정작 이렇게 해외로 취업을 떠난 청년들이 해외에서 어떤 노동을 경험하고 있고,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해외로 취업을 떠난 청년들의 이와 같은 비가시성은 비단 정부 정책 차원에서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2000년대 이후 쏟아지는 청년문제에 대한 다양한 청년 담론 속에서도 이들의 이야기는 물리적인 거리 등 다양한 이유로 배제되거나 제대로 다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2007년 출판된 <88만원 세대>를 필두로 청년세대의 빈곤과 불안정한 삶에 초점을 맞춘 세대 담론들은 지속적으로 생산되고 있다. 이의 반대편에는 <아프니까 청춘이다> 등을 대표로 현재

청년세대를 둘러싼 문제를 아직 삶의 진로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필연적으로 겪을 수밖에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무마하며, 일시적 방황상태에 대한 심리적 치유만을 강조하는 담론들 또한 강력하게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담론들은 대부분 한국 사회에 머물고 있는 청년들의 사례와 경험들에 주로 관심을 기울일뿐, 한국 사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는 대체적으로 다루어지고 있지 않은 듯 하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일부 언론 매체에서는 한국 사회를 떠난 혹은 떠날 수밖에 없었던 청년들에 대해 관심이 매우 적은 반면, 북한 사회를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에는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곤 한다.

물론 한국 사회를 떠난 청년들의 경험이 주목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것은 대개 ‘성공신화’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90년대 초반의 조기유학 성공담의 연장선상에 있는데, 92년 신세용의 <나는 한국인이야>, 93년 홍정욱의 <7막 7장> 등 한국의 ‘민족성’을 굳건히 지켜내면서도 세계를 무대로 - 엄밀히 말해서는 미국에서 - 혁혁한 성공담을 써나가는 이야기들이 주를 이룬다. 이런 식의 내러티브는 해외 기업에서 승승장구하는 젊은이들의 경험담과 자기계발서식으로 재생산되고 있다. 이런 서사에서 재현되는 이들은, 유수의 대학 졸업 등 굉장한 인적 자본을 갖추고 전지구적 노동 시장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화려한 라이프 스타일을 자랑하는 코스모폴리탄적 엘리트가 주를 이룬다. 최근에는 국내의 어려움과 취업시장에서 고군분투하다, 시야를 넓혀 해외에서 각종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공적으로 자리를 잡은 성공담들도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경험은 모두 코스모폴리탄적 라이프스타일과 경제적 성공이라는 한 지점으로만 수렴할뿐이다. 따라서 그렇지 못한 대다수의 해외 취업 청년들의 ‘이주노동’ 경험과 삶, 그리고 그 목소리는 제대로 전달되고 있지 못한 상태이다.

바로 이러한 틈새들이 이 연구가 바라보고 있는 지점이다. 이 연구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실업을 해결할 방안으로 국내의 노동시장을 건강하게 변화시키기 보다는 해외로 전가하여 풀어내는 것이 강력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해외 취업을 떠난 청년들이 청년 담론에서 배제되거나 단편적으로 ‘성공적인 코스모폴리탄’으로 재현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로 이주를 떠나고 노동을 경험하는 청년들 - 구체적으로는 ‘코스모폴리탄적 엘리트 유연 노동자’가 아니라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한 상대적으로 학력과 인적자본이 높지 않은 청년들이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현지에서의 노동과 삶에 대한 연구를 통해 정부에서 추진중인 해외 취업을 통한 청년 실업 해결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이와 동시에 한국 사회의 청년 세대에 대한 담론을 조금더 확장시켜 보려고 한다.

## 2. 연구 방법

본 연구를 위해 나는 2015년 10월부터 12월까지 조사를 진행하였다. 싱가포르 해외 취업과 관련된 웹사이트와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상의 각종 게시물과 고민상담에 이르기까지 본격적인 현지조사에 앞서 이들이 처한 전반적인 환경과 과정 등을 살펴보기 위한 사전 조사를 진행하였고, 약 41명의

청년들을 만나 이들의 경험을 들었다. 특히 이들 중 8명의 경험에 중점을 맞추어 이 글을 진행할 것이다. 40여명의 청년들의 아주 많은 숫자는 대개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있어 다소 주저하거나 단답식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는데 있어 상당히 조심스러워 했다. 그 이유로는 첫 번째로 이러한 질적 연구에서 인터뷰 참여자들이 갖게 되는 불안감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인터뷰로 인해서 자신이 당하게 될 불이익과 피해 등에 대해서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개 과거의 이야기보다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될 때 많은 사람들이 주저하게 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두 번째로는 이 연구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두 달 동안 압축적으로 진행되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연구자인 나에게 연구참여자들이 신뢰를 갖고 친밀함을 느끼며 솔직하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 놓는데 물리적으로 한계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따라서 이들 중 자신의 이야기를 적극적으로 털어 놓으며, 특히 ‘이 이야기를 누군가 들어주었으면 정말 좋겠다’고 생각했거나, ‘꼭 많이 알려져서 자신처럼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하나라도 없었으면 좋겠다’고 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솔직하게 꺼내 준 8명의 이야기를 중심으로 이 글을 진행시켜 나갈 것이다.

인터뷰는 대부분 연구참여자들이 선호하는 공개된 장소에서 한국어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에 앞서 그들의 권리에 대해서 나는 충분히 숙지시켰다. 우선 이 연구의 취지와 목적 등을 상세히 밝혔고 이들의 이야기는 철저히 익명성을 보호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언제든지 자신이 대답하고 싶지 않은 질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아도 된다고, 인터뷰 이후에도 자신의 이야기가 내 연구에서 빠지고 싶길 원한다면 요구할 수 있고, 인터뷰 자체를 취소할 수 있으며, 녹음을 허용 여부에 대해서 대상자에게 자신의 권리를 충분히 숙지시켰고 동의를 받은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당연히 앞으로 이 글에서 언급하는 이름은 모두 가명이며, 이들의 직장과 일하는 곳 또한 비실명으로 처리할 것이다.

## 3. 글의 진행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떠난 청년들의 이야기를 본문에서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진행하려고 한다. 이 세 부분은 바로 ‘탈출’, ‘포주들’, ‘이주노동의 삶’이다. 첫 번째 탈출에서는 이 청년들이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결심하기까지의 과정을 살펴볼게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의 경험이 제각기 다르듯, 이들이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결심한 이유 혹은 이들을 싱가포르로 ‘밀어냈던’ 이유들 또한 다양하다. 흥미로운 점은 해외로 청년들을 취업시켜 청년 실업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부의 입장과는 달리, 싱가포르로 취업을 온 대부분의 청년들은 한국에서 각기 제 분야에서 취업을 한 상태였던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물론 이들이 싱가포르로 온 자리를 다른 청년들이 채워 전반적으로 취업자수를 다소 높일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단순히 취업을 해외로 하게 하여 실업자수를 낮추겠다는 논리는 들어맞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이들이 한국에서 취업 상태였다는 것은 싱가포르로 오게된 제 각기의 이유에서 큰

공통점을 하나 만들어내는데, 바로 한국 사회와 노동 현실에서의 여러 가지 부당함이 이들을 해외로 내몰게 되었다는 것이다. 학력차별, 국내 경력보다 해외 경력을 우선시 하는 경력 차별, 직장내에서 만연한 성차별 등등의 각종 불안정성과 부당함과 차별은 이들을 싱가포르로 ‘탈출’하는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해고를 쉽게 하는 등의 노동 유연화와 해외취업 장려책은 실질적으로 청년들의 노동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더욱 악화시킬 가능성이 높다. 폭력적이고 차별적인 노동 현장에서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채, 노동의 불안정성만 높이는 방식으로 되려 이들의 노동 자체를 위태롭게 만들고 지속적으로 자신의 경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을 단절시켜버리기 때문이다.

두 번째로는 ‘포주들’로 이야기를 풀어나갈 예정이다. 이것은 이들이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직접적으로 실행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게 될 것이다. 이들은 대개 정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결된, 다시 말해 정부 산하 기관이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있던 해외취업 프로그램이나 정부와 계약을 맺은 해외취업알선 에이전시들을 통하여 오게 되는 경우가 절대다수인데, 정부든 에이전시든 그들이 애초 ‘약속했던’ 것과는 매우 다른 상황으로 점차 진행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많은 청년들이 에이전시와 정부를 자신의 권리를 지켜주는 것보다는 자신들을 의도했던 하지 않았던 ‘숙여넘긴’ 기관으로 파악하고, 자신들에게 지속적으로 착취를 하는 것 같은 에이전시들을 자신들의 신분 불안정성을 불모로 하여 부당한 계약과 노동을 받아들여야 하면서 계속해서 커미션을 받아내는 포주로 인식하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할 것이다. 특히 ‘정부’와 관련이 있을수록 초기 단계에 이들의 ‘신뢰’는 높아지지만, 그 ‘신뢰’를 이용하여 훨씬 더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가게 되는지를 살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주노동의 삶’에서는 위의 과정을 거쳐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온 이들이 현지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대로 계약서 조차 작성되지 않은 채 다양한 착취구조에서 가장 말단에 위치하게 된 이들은 경제적 착취 뿐만 아니라 때로는 신체적인 폭력에 이르기까지 수 많은 위협에 노출되게 되는데, 이들이 이에 맞서 저항하기 보다는 점차 순응하게 되는 과정을 그려보고자 한다. 특히 이러한 순응의 과정에서 한국 사회의 학교 교육 현장에서뿐만 아니라 노동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고 경험했던 것은, 이들이 싱가포르에서 당하는 착취를 정당화하거나 개별적으로 ‘이해’하고 순응하는 밑바탕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다시 말해 한국 사회에서 지속적으로 노출되었던 부당함, 차별, 폭력 등은 해외에서 경험하는 차별과 폭력에 대해서 저항하기 보다는 순응하게 만들어 버려, 청년들을 약육강식의 착취 구조에서 가장 쉬운 대상으로 만들게 된다는 것을 논하고자 한다.

#### 4. 탈출 - 부당하거나 혹은 차별하거나

주나리(1994년생)는 경기도의 한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고민에 빠졌다. 대학을 진학할지 아니면 취업을 하게 될지였다. 몇해전까지 실업계

고등학교 졸업생들도 대부분 전문대를 중심으로 대학 진학이 대다수였고, 아직도 대학을 진학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지만 최근 그 분위기가 점차 바뀌고 있었다. 어차피 대학에 졸업을 한다 해도 별로 취업에 도움이 안되기 때문에 값비싼 등록금을 내고 졸업장을 따는 것이 점차 의미가 없어졌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과감히 대학진학을 포기하는 것 또한 불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왜냐하면 모두들 대학 졸업장을 갖고 있는 상태에서 자신만 고졸인 것은 어딘가 모르게 주눅이 들거나 구직을 더욱 힘들게 만들 수도 있기 때문이었다.

현정부 들어서 고졸 취업을 높여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흘러 나왔다. 고학력자들이 너무 많아서 노동 시장의 불균형이 야기됐다는 주장과 교육비로 가정 경제가 위태로워진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정부에서는 고졸 취업자들을 높이려는 압력을 기업들에 넣었다.

“원래는 꿈이 승무원이어서 전문대라도 장학금 받으면서 가려고 했어요. 그쪽으로 해보고 싶었는데, 제가 졸업 때 박근혜 정부에서 고졸 취업 장려한다고 해서 큰 기업들이 ‘열렸어요’. 처음에는 백화점에 정규직으로 취업을 했었지만, 마음에 들지 않았었는데 어찌다가 XX 은행으로 이직하게 되었어요. 3천명이 졸업해서 100명이 뽑혔는데 얼마 안되는 고졸자로 대형은행에 취직하게 된 거죠. 제 입사 동기들을 보니 다들 이름있는 대학들을 나온 언니 오빠들이었어요.”

고교 졸업을 앞두고 첫 직장으로 가게된 대형 백화점의 사무직에 취업을 했을 때, 그녀는 그곳이 자신의 능력을 키우고 경력을 쌓으며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자신이 아무리 실업계 고등학교를 나왔어도 자격증도 많고 성적도 좋은 편이었지만, 그곳에서 취업한 사람들을 보니 그곳은 “막말로 예쁘장하고 성격만 좋으면 다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다. 성격이 좋다는 것은 온갖 험한 말과 폭력적인 말을 들어도 그냥 참고 웃어 넘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했으며, 예쁘장하고 성격만 좋으면 다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능력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언제든지 다른 사람으로 쉽게 대체될 수 있는 부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준 것이기도 했다.

주나리뿐만 아니라 한국의 서비스 업계에서 직업을 갖고 있었던 여성 청년들의 경우 대부분 ‘외모’를 취업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뽑았다. 능력이나 경력과는 상관 없이 대부분의 회사들에서는 ‘외모’를 가장 중요하게 보았고, 면접에 갔을 때에도 빈번하게 외모에 대한 평가와 지적을 받았던 것이 일쑤였다. 서비스 업계에서 여성이 일을 할 때, 기업의 인재상이라는 것이 다름 아닌 얼굴 생김새와 외모라는 것을 간파할 때까지는 그다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서울의 한 전문대학에서 호텔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는 과정에서 박현주(1993년생)의 경험 또한 마찬가지다.

“한국 호텔은 외모를 되게 중시해요. 학교에서 과탐이어서 교수들이 5성급 호텔들에 추천해주어서 면접을 보게 됐었는데, 저보다 학점도 영어 성적도 현저히 낮은 동기랑 같이 봐도 저는 안됐는데 그 친구는 다 붙어요. 차이는 단 하나. 그 친구는 예뻐요. 한국 사람들이 화려하게 예쁘게 생긴 걸 좋아해서.... A호텔 B호텔에서는 그렇게 예쁜 사람들만 뽑아요. 심지어 면접 때 살을 빼라 뭐 이런 소리도 듣고... 그러다가 한 호텔에 입사하게 됐는데, 입사하고 나서 성형하라는 얘기도 들었어요. 더 문제는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같이 외모의 감시자가 돼요. 살이 좀 찌면 살이 찌는 것 같다... 살이 빠지면 빠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면서. 계속 외모 갖고 뭐라고 하는 것이 스트레스였지만, 점점 그냥 듣고 넘기게 됐어요. 수술할 생각도 없고 내인생 내가 사는데... 그러다 보니 한국의 호텔 업계를 알게 됐어요. 너무 일이 고되기도 하고, (이렇게 외모 보고 뽑았기 때문에) 여자는 대개 6-7년밖에 일을 못해요. 그 다음엔 이 업계를 떠나야죠.”

다시 주나리의 이야기로 돌아가, 첫 직장으로 백화점에 일하면서 그곳의 직장 환경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한 살 많은 사람들이 선배라면서 텃새도 심하고, 인사하는 것 갖고 사람을 닦달하고 괴롭히고, 직장 내에서 따돌림 등은 그녀가 이직을 결심하게 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사측은 이렇게 직장내에서 직원들 사이의 폭력적인 위계질서와 군대 문화를 통해서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었고, 그 직장에서 10년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가장 앞장서서 그런 조직 문화를 만들고 있는 것을 보면서 너무 유치하다고 느꼈고, 그곳에 있으면 10년 뒤에 이런 사람만 되겠다는 생각에 첫 직장에서 빨리 떠나야겠다고 결심했다. 직장 내에서 구성원들 사이의 위계질서와 그를 기반으로한 폭력적인 군사 문화들은 아주 많은 청년들을 ‘내모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여러 사람을 채용해서 일을 좀더 분담해야할 것을 적은 수의 인원에게 할당하고서는 그것을 추진시키는 방법은 구성원 내부의 폭력적인 위계질서를 바탕으로 하고 있었고, 부당함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사용되는 폭력에 대해 깨닫게 되었고, 더군다나 그것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으며 그 직장에서 살아 남아 있는 선배들을 보면서 그곳에 남아 있으면 자신이 그런 사람밖에 되지 않겠다라는 환멸감은 이들을 직장, 더 나아가서는 한국 사회를 탈출하게끔 만들었다.

주나리의 경우 고졸로 시내 대형은행에 입사하여 ‘성공적으로’ 직장생활을 하였다. 실적이 좋은 지점에서 ‘줄’을 잘 타기도 했고 성격 자체가 빠릿빠릿하며 쾌활해,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었다. 본사에서 매일 같이 신용카드, 보험 등 일일 업무 실적을 전국단위로 직원 순위를 발표했는데, 자신의 이름을 ‘스크롤바에서 주욱 내려서’ 보고 싶지는 않아서 최선을 다했다. 게임에 들어왔을 때 지기는 싫었기 때문이다. 덕분에 전국 1등도 여러번 했었다. 만 스무살도 안되는 나이에 지점에서 전국 1등을 차지하는 업무 성과 때문에 본부장까지 그녀의 이름을 알고 있을 정도로 ‘유명한 고졸 직원’이 되었다.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녀가 두 번째 직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일하는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마주하게 되는 ‘폭력’ 때문이었다.

“은행에서는 선후배나 동료들 때문에 힘든 건 없었어요. 좋은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너무너무 힘든 것은 고객한테 무릎만 안꿨었지 빌빌 대는 게 너무 싫었어요. 얼굴에 카드도 던지고 통장도 마구 던져요. 울도 아니고 병도 아니고 ‘정’인 입장이 바로 창구 직원이었어요.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하루에도 천번도 넘게 해야하는 입장인 거예요. 계속 죄송합니다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살아야해요. 그냥 죄송합니다 기계죠. 손님이 딱 앉으면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오래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라고 이야기를 시작해요. 근데 손님한테는 죄송합니다라는 말이 안들리나봐요. 나는 그냥 그 사람의 업무를 해결해줘야 하는 것뿐인데, 이게 죄송한 일이 아닌데 왜 죄송하다는 말을 계속 그렇게 하고 있지... 카드를 하나 팔아서 서류를 쓸 때에도, 사인을 할 때 사인할 곳이 많다고 투덜 대면 또 죄송하다고 해야하다고 해야하는 거죠. 대한민국의 모든 서비스직이 그런 거예요. 저만 특별히 그렇게 아니라. 가장 힘들었던 것은 임신부들이었어요. 임신 중이거나 아기 키우고 계신 분들이 너무 힘들었어요. 하도 힘들 게 해서 왜 그런가 하고 찾아서 공부까지 해봤어요. 호르몬 때문이래요, 피해의식이 생긴다나.. 한번은 만삭의 임신부가 와서 국세청에 문의할 것을 저에게 와서 따졌어요. 그래서 어디다 문의해야하는지 알려드렸더니 ‘니가 할 수 없어서 나보고 다른 데 알아보라는 거야??’라면서 짜증을 내더니, ‘보이죠? 제가 임신 중이라서 언니 얼굴만 봐도 역겹거든요. 언니 치워주시고, 다른 직원 좀 데리고 와요.’라고 했어요. 수 많은 이상한 사람들을 봤지만, 이 말이 가슴에 멍이 됐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그런 일을 다 처리하고 나서 마음을 다스릴 시간도 없이 바로 다음 고객을 받겠다고 ‘땡땡’을 해야하는 거예요. 다른 동료 직원들에게 피해가 갈 수 있으니까요. 그런 상황을 너무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처럼 무례한 고객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는 체계가 제대로 잡혀있지 않은 채 고객만족이라는 미명하에 직원들을 끝없는 감정과 육체노동으로 내몰게 되면서 이들은 이러한 노동과 감정의 착취 구조 속에서 버티기가 나날이 힘들어진다. 주나리의 경우 그렇게 감정 착취에 시달리다가 심장이 박동이 너무 빨라져서 병원에 가게 됐고, 그결과 ‘화병’이라는 진단을 받게 된다. 미국 정신의학회가 편찬하는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DSM)’에서 한국사회에만 특별하게 존재하는 문화적 심리 장애로 구별하고 있는데, 주관적 분노와 억울하고 분하며 오래된 분노가 지속적으로 응축된 결과로 나타난다.(Kim, Suh, Song 2009) 화병이 전세계적으로 표준적인 정신질환이 아니라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발생하는 정신 질환이라면, 그것은 한국 사회와 문화의 구조적 문제에서 기인하게 될 가능성이 높는데, 이처럼 과도한 감정적 착취와 그에 대한 안전망과 보호장치가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크게 된 것이다. 어쨌든 주나라의 경우 만 스무살의 나이에 그렇게 가슴에 멍이 들었고, 그 나이에 ‘화병’에 걸리게 되었다. 뛰는 심장 박동을 버텨낼 수 없어 결국 사직서를 썼고 1년동안 매일 소주를 먹다가 다시 세상 밖으로 나가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노동과 감정의 만성적 착취 구조는 이들이 ‘탈출’을 감행하는 주요한 원인이 되었고 아울러 ‘국내파’와 ‘해외파’와의 차별, 그리고 직장 내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탈출을 결정한다. 호텔 업계 등 서비스 계통의 업계에서 해외에서 학교를 졸업하거나 이력을 쌓은 것을 높게 우대해주고, 상대적으로 일을 더 잘함에도 불구하고 해외 이력이 없다는 이유로 차별받는 것을 보면서, 한국에만 있으면 한국 사회에서조차도 살아 남기가 쉽지 않겠구나를 점차 알게 된다. 따라서 해외로 나가는 것은 한국 사회에서 ‘탈출’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지만, 설사 해외에서 경험이 그렇게 좋지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한국 사회로 되돌아 왔을 때 한국 사회에서만 경력을 쌓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더 이점을 얻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된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이들이 ‘탈출’을 결심한 이유는 현재 있는 시스템 속에서 상하관계를 익히고 그 관계의 ‘기술’을 배우라고만 하지 자신의 직업 영역에서 무엇을 더 배울 수 있는지에 대한 회의감이 점점 커지게 된다는 것이 있다. 사람을 키워내고 길러내기보다는 사람을 압축적인 시간동안 빨리 써서 소모시키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시키는 것에 익숙한 사회에서 그들은 자신 또한 소모되는 배터리처럼 버려져버리고 말 것이라는 불안감이 깊숙이 자리 잡고 있었다.

이처럼 싱가포르로 해외취업을 결정하는 것은 외국어를 더 배우고 해외 이력을 쌓으며 전세계를 떠돌아다니며 ‘코스모폴리탄 노동자’로 살겠다는 열망이 더욱 크기 보다는, 한국 사회에서 사회문화적 착취와 부당한 차별로 인해 ‘밀어냈던’ 요인이 굉장히 크게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 5. 포주들 - 내 등에 빨대를 꽂고 있었다

‘탈출’의 결심을 한 이후 청년들은 해외 취업을 살펴보게 된다. 대부분 도시 노동자 계급의 가정 환경에서 해외 유학과 연수는 그들이 감당하기에 큰 비용이 들기 때문에 해외 취업을 중심으로 알아보게 된다. 하지만 조금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이들이 주로 정보를 얻게 되는 경로는 각종 포털 사이트에 검색이 주를 이루는데 검색시 쏟아지는 각종 에이전시 광고로 첫 번째 정보를 얻게 된다. 이 에이전시들은 단순히 해외취업을 알선한다고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 취업을 장려하는 국가 프로젝트의 한 부분으로서 해외 연수와 취업을 동시에 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진행하고 있다고 홍보하고 있다. 이에 청년들은 자신의 학력 자본과 외국어 능력이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는 상태에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어학연수와 취업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끌리게 되고 더군다나 정부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것에 더욱더 신뢰를 갖게 된다. 또한 이 에이전시 웹사이트들에서는 이 에이전시들이 이전에 얼마나 훌륭한 직장으로 취업을 성사시켰는지, 한국에서 ‘스펙’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서 좋은 직장을 구할 수 없었던 이들이 해외에서 자신들의 서비스를 통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이들의 진입을 끌어들이고 있다.

이주 노동에 대한 다양한 분야의 연구들에서 이들 해외 취업 알선 에이전시들이 사실 정보불균형성에 기반하여 이주 노동자들을 또다른 착취 구조 속으로 몰아 넣고 있는지에 대하여 밝혀낸 바 있다. (Freeman 2011, Hairon 2007, Constable 2007 등) 이주노동자들이 현지에 대해서 제한된 정보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들 에이전시들은 현지의 고용 환경과 노동 관련 법에 대해서 거의 알고 있지 못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거짓된 정보를 알려주거나, 불리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감추고 유리하게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을 확대시키는 방식으로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이들을 ‘속인다.’ 인터뷰에 참여한, 단 한명도 제외하지 않고 모든 이들이 이들 에이전시들로부터 일종의 ‘사기’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털어 놓은 바 있다.

에이전시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논의하기에 앞서 이러한 경험은 정부 산하 기관을 직접적으로 통해 들어온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2010년 초 대학을 졸업하고 싱가포르에 해외 연수 및 해외 취업 프로그램의 이름으로 정부 산하 기관을 통해 싱가포르에 오게된 제임스(1982년생)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해외취업알선 에이전시와 그 정부산하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공개 설명회 자리에서 슬라이드쇼에서 싱가포르에 와서 연수를 받고 취업을 시도하면 싱가포르에 있는 포춘 50대 기업에 다 들어갈 수 있으며, 한국에서 꿈도 못꾸는 회사에 들어갈 수 있다는 희망을 중계 된다. 지방의 4년제 대학 출신으로서 취업에 쉽지 않았던 그는, 부족한 외국어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 기회를 전혀 잡을 수 없는 해외 유수의 회사들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되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다. 그는 600만원 정도의 알선 수수료를 냈고, 일부 정부 보조를 받아 싱가포르에서 6개월 동안 어학연수부터 받게 된다. 남들과 화장실을 공유하고 주방도 제대로 못쓰면서 70만원이 넘는 집세와 비싼 생활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했는데, 때문에 라면 하나를 갖고 세끼를 나눠 끓여 먹는 등 ‘빈곤’ 상태로 6개월을 보내게 된다. 무조건 취직할 수 있다는 에이전트의 말은 사실이자 거짓말이었다. 무조건 취직할 수 있는 직종은 단순 육체 노동직으로 집값조차 낼 수 없을 정도의 형편없는 임금을 주는 분야였지, 홍보했던 포춘 50대 기업들이 아니었다.

“그런 희망을 주는 거죠. 거기에 혹 간거죠. 하지만 이상한 거죠. 그 회사에서 한국말로 일하는 것도 아니었는데 말이에요. 에이전트들에 속은 거예요. 하지만 개념이 없었어요. 에이전트가 전문가라고 하기에 그냥 믿었었지만 살아보고 경험해보니 그건 아닌 거죠. 제가 깨달은 건 이거예요.

포춘 50대 기업에서 우리를 뽑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거 말이에요. 하지만 어찌 보면 그사람들도 사기친 것은 아니에요. 그냥 제 능력이 부족한 거였죠.”

제임스의 이런 이야기들은 ‘모든’ 인터뷰에 응한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했던 말이다. 취업 에이전시를 통해서 엄청난 금액의 수수료를 지불했고, 그들은 그 에이전시에서 약속하는 ‘일류 회사’들에 취업을 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오게 된다. 하지만 한국을 떠나 구직하는 과정에서 그 일류 회사들에는 전혀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이것을 에이전시가 사기를 친 것이기는 하지만 결정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부족하여 생긴 책임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에이전시가 정말로 어떤 곳인지를 제대로 살펴보지 못한 것도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능력 부족이며, 일류 회사에 취업을 할 수 없는 것도 본인의 책임이고 본인의 능력 부족이 되어버린다. 이처럼 자신을 둘러싼 모든 불합리함과 약속된 것이 어긋난 것은 모두다 자신의 책임이자 잘못이 되는 방식으로 ‘이해’해버리는 것이다.

내가 인터뷰를 했던 청년들 중에 상당한 수의 청년들은 한국의 특정 에이전시를 통해서 해외연수+해외취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싱가포르에 오게 됐는데, 이 에이전시는 국가 지원을 받는 프로그램이라고 홍보를 하고 선착순으로 경쟁을 시키고 면접심사를 통해 해당 기수를 모집하였다. 최종 선발이 된 후 연수를 받게 되면서 알게된 사실이지만 선착순으로 받아 경쟁을 시킨다는 것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았다. 매번 한 두자리만 남은 상태라고 하였지만 언제 지원했더라도 지원자들이 모두 통과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선착순이며 서류 심사로 경쟁을 통과하였다고 하고 면접 심사를 따로 본 것은 사실상 이들에게 인기있는 유망한 프로그램에 ‘경쟁’을 통하여 살아 남은 싱가포르에서 생존율이 높을 가능성이 있는 지원자라는 인식을 주기 위함이었다.

처음에 국가 지원을 해서 자비 부담이 별로 없을 것이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었다. 국비 지원은 사실상 그 해에는 이미 끝난 것이었고, 그 다음해에 되리라는 보장도 전혀 없는 것이었으며 된다 해도 이 청년들이 해당이 될지는 더더욱 미지수였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연수+취업 패키지 프로그램으로 필리핀에서 2-3개월 영어 연수를 마친 뒤, 싱가포르로 취업을 시켜준다는 프로그램이었는데 ‘선발’된 모든 이들은 이 코스를 따라야만 했다.

자비 부담이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는 말과 싱가포르 호텔에 취업을 하고 싶은 경우 가장 높은 브랜드 호텔들만을 엄선해서 취업을 시켜준다는 말에 대부분은 2년짜리 계약을 맺게 된다. 하지만 들어가는 비용은 점점 커졌다. 처음에는 진행비 30만원이 필요했고, 필리핀 어학연수에 295만원을 내야했으며, ‘물이 미스트처럼 나와 도무지 샤워를 할 수 없어 바가지에 받아서 써야하는’ 그것도 온수가 나오지 않는 집에 방 한 칸에 세명이 구겨져서 살아야 하는 기숙사라는 곳을 1인당 100만원씩 내야했으며, 식사는 따로 해결해야만 했다.

게다가 필리핀 비자비라는 명목으로 30만원, 1개월을 다시 연장해야 한다며 다시 30만원, 공항에서 픽업을 해야한다며 추가 비용을 가져가는 등 1인당 줄잡아 600만원이 넘는 비용을 청구했다. 그들이 제대로 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영어 강사에게 듣는 수업의 비용이었다. 한인 대상 범죄로 악명이 높은 앙헬레스 지역에서, 그렇게 싱가포르로 취업을 대기하며 악몽같은 기숙사에서 있었던 그 단 두 달동안, 2명의 한인이 피습됐다는 무시무시한 소식도 들었다.

취업은 필리핀 ‘어학연수’기간 동안 스카이프를 통해 온라인으로 이루어졌다. 물론 4-5성급 일류 호텔들의 면접을 ‘단 두 번’ 알선 해 주었지만 같이 온 20명의 사람들 중 단 두 명만이 그쪽으로 취업을 했고 나머지 18명은 동네 레스토랑의 서버나 주방일, 혹은 의류 매장의 판매원으로 보내졌다. 두 번의 기회를 통과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에이전시는 ‘너희들 그냥 아무데나 다 돌릴 거다’라고 욕박을 질렀다. 김현진 (1994년생)은 그 경험을 이렇게 기억한다.

“에이전시에서 상담받을 때, 제가 한국에서 좋은 호텔에서 일한 경력도 있고 이전 사람들도 모두 4-5성급으로 취직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말을 혹 하게 잘하기도 해요. 어차피 싱가포르는 관광 산업이 잘 되어 있어 수가 많으니 별 문제 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두 번 정도 오성급 인터뷰 기회를 주고는 더 이상 5성급을 줄 수 없으니 니가 일반 레스토랑을 가든 아니든 아무데나 가라. 다 돌릴 거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을도 아니고 정도 아니고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하라하면 하라는 거죠. 오기전에 약속했던 것들이 지켜지는 게 없었어요. 이렇게 당하는구나... 돈받으면 정말 끝이구나... 돈 받기 전에는 우리가 도와줄게, 너희는 나만 믿고 따라오면 돼라고 했지만, 막상 돈을 내고 나니 우리가 가라면 가, 왜 말이 많아.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는 어이가 없었어요. 따지면 다 저희 잘못이니까요. 너희의 능력이 부족해서 그런 건데 뭘 따지냐는 식인 거죠.”

그렇게 김현진은 싱가포르 외곽의 외국인인이 주로 사는 부유한 동네의 한 레스토랑에 취업을 했다. 그녀가 기대했던 일류 호텔이 아니라 동네의 자그마한 식당이었다.

김현진은 카카오톡으로 계약서를 받았다. 계약서에 싸인을 한 적도 없지만, 이미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였고 종이로 된 계약서는 보지 못했다. 종이로 써 있는 계약서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준 계약서였는데, 무슨 계약 내용이 있는지 보려면 사진을 확대해서 제대로 찍혀 있지 않은 사진을 고고학자처럼 밝혀내야 했다.

함께 이 에이전시를 통해 온 고나리 (1994년생)는 싱가포르에 도착하여서 자신의 계약서를 보게 되었다. 계약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2년 의무이고 2년 이내에 관둘 경우 140만원에 가까운 벌금을 내야한다라는 것이었다. 싱가포르에 들어와 이 계약서에 항의하러 한국의 에이전시와 함께 일하고 있는

현지 에이전시로 찾아갔다. 한국 에이전시는 제대로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현지 에이전시로 알아보라고 계속 떠넘겼기 때문이다. 그녀는 인터넷을 통해서 2년 근무를 하지 않으면 벌금을 물리겠다는 것이 잘못된 것임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자, 싱가포르 에이전트는 갑자기 화를 내면서 계약서를 딱 빼앗아 던져버렸다.

“뭐가 불만족스러운 거야? 니가 일하러 온거 맞냐? 아니면 바로 여기서 나가라! 이러면서 한시간 동안 아주 모욕스러운 얘기를 들었어요. 그 에이전트는 계약서에 보면 근무시간이랑 휴가와 돈이 얼마인지 회사가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준다는 것을 다 써주었는데, 왜 너는 왜 회사에 의무를 안하려고 하나. 왜 회사에 받기만 하고 주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일할 준비가 안됐다. 어린 애라. 이런 생각이면 엄마한테 돌아가서 징징대라. 누가 너 같은 애를 받아 줄지 모르겠다. 지금 당장 비자를 취소할테니 썩 꺼져라. 그 사람 말에 말을 해도 화를 내고, 말을 안하고 있으면 말을 안한다고 화를 내고... 니가 돈이 많으면 변호사 구해서 소송하고, 이걸 자신 있으면 돈 내지 말아라. 알 바 아니다. 그러면서 중국어로 저에게 ‘정신병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중국어를 어느 정도 알아들을 수 있었던 고나리는 그 현지 에이전트가 간간히 중국어로 뱉어내는 욕을 알아 들을 수 있었다. 하지만 영어를 갖고 자신의 계약 문제에 대해서 항변한다는 것은 여러 문제가 있었고, 한국 에이전시는 무조건 현지 에이전트랑 해결할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하기에 바빴고, 결국 연락을 받지 않기까지 했다. 그냥 지금 이 상황에서 돌아갈까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본전 생각’이 났다. 이미 이곳에 오느냐 다니고 있던 직장도 관두었고 직장 생활동안 모아두었던 돈도 고스란히 에이전시에게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큰 결심을 하고 왔는데, 온지 3-4일만에 이런 일을 당해서 상심이 컸다. 에이전시가 약속했던 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 “이게 다 내 능력이 부족해서”라고 이해했던 것처럼, 이런 모든 부당한 사건의 마지막 설명은 늘 자기 자신이었다. “여기서 그만 두면 다른 일이 생겨도 쉽게 그만 둘 것이고, 그것은 내 자신을 그만 두는 것과 마찬가지로 같아서”였다. 외부의 문제를 언제나 자기 탓으로 돌리는 것, 자기 안에서 자기로만 설명의 방식을 찾는 것은 어디다 항변할 곳도, 피해를 보상하라고 요구할 곳도,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희망이 아예 없는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인 설명이자 납득이자 이해의 방식이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깨닫게 된 것이 하나 있었다. 에이전시들은 자신들의 취업을 알선해주고 기업으로부터 어마어마한 수수료를 챙기고 있었다. 심지어 많은 경우는 임금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월급에서 수수료로 챙겨가기도 했다. 달콤한 말로 꼬득여, 자신들의 주머니를 털어내고, 네 능력이 부족해서 못한 것이라고 혼을 내며, 매달 월급의 일정 부분을 떼어가고, 잘못된

계약에 대해서 항의를 하면 비자를 취소해서 쫓아내 버릴 것이라고 으박 지르는 그 에이전시는, 그들이 거금의 수수료를 지불한 뒤 기대했던 서비스는 아니었다. 오히려 그 에이전시들은 자신들을 착취의 수렁으로 끌고 갔던 가이드였고 지속적으로 자신들에게 돈을 가져가는 사람들이었다. 아주 많은 이들이 이러한 (정부 지원 사업 혹은 정부와 함께 한다는 해외 취업 장려 프로그램) 에이전시들을 “포주”이며 자신은 그 포주 밑에서 착취 당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표현한 것은 과한 것은 아니었다. 물론 그 구조를 알고 있다고 해서 저항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 자기 내부의 설명 체계를 통해 자기 책임으로 이해하는데 너무나 익숙했기 때문이다.

## 6. 이주노동의 삶 - “한국적 외노자”

물론 이들이 얼마나 열악한 상황에서 근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말할 필요가 있겠지만 단순한 수치로도 그냥 쉽게 이해될 수 있다. 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이들이 받고 있는 임금은 1300 싱가포르 달러로, 한화로 치면 110만원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일주일에 6일을 근무하고 법정 근무시간이 8-9시간이지만 실질적으로 12시간 이상을 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이다. 심지어 70만원 정도의 임금을 받는 사람들도 있었으며, 한달에 2번 휴일이 있고 만약 몸이 아파 병가를 내야하면 의료비 지원은커녕 그 손실분 4만원을 본인이 회사에 메꿔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자신이 받는 하루 임금이 3만원이 채 되지 않는데, 하루를 결근하게 될 경우 그보다 더 많은 벌금을 내야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 과정에서 손실 - 예를 들어 그릇이 깨지거나 자신이 담당할 손님이 계산을 하지 않고 도망가는 경우에 자신이 직접 부담해야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노동 강도가 높을뿐더러 경악스러운 싱가포르 물가는 이들이 받는 임금으로 버텨내기 힘든 수준이다. 일반적으로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 한 칸’ - 한국처럼 원룸이 아니라 아파트 한 채에 여럿이 혹은 주인과 함께 사는 방 한 칸이 외곽지역의 경우에도 월세가 80만원을 넘는다는 것을 고려해볼 때 이들의 임금은 처참한 수준이다. 따라서 생활비를 아끼기 위해 아주 작은 서너평의 방을 세네명이 같이 사용하기도 하고, 그래도 부족한 생활비 때문에 월급이 다가오기 전 가장 곤궁할 때에는 식사를 계속 굶기도 한다. 회사에서 초과근무를 시켜도, 초과 근무 수당은커녕 초과 근무에 따른 식사 또한 제공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아,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며 월급날까지 버티는 삶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이 노동을 ‘연수’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비슷한 조건하에 한국에서 일을 하였을 경우에는 ‘노동’과 ‘직장’이라고 생각하지만, 싱가포르에서의 ‘노동’은 단순히 ‘노동’이라기 보다는 외국어를 배우고 해외 경험을 늘리고, 한국으로 돌아가서 조금 더 인정을 받거나 혹은 이보다 나은 환경에서 근무하기 위해 지불해야하는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자신은 해외에서 학위를 딸 수 있는 경제적 능력 혹은 해외에서 어학연수를 떠날 비용을 내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몸으로 떼운다”는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이 일하고 있는 곳이 대부분의 경우 노동 시장 내에서 이력과 경력으로 받아들여지기에는 조금 난처한 부분이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대부분의 사람이 성토하듯, 외국어 실력은 그렇게 늘지 않는다. 대부분 힘든 노동으로 지쳐 외국어 연습을 하거나 공부할 시간도 함께 외국어 실력을 늘릴 수 있는 자원과 사람들도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이력과 경력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법하면서도, 외국어 실력을 늘릴 수 없는 구조 속에 있지만, 자신의 노동 착취를 ‘연수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물론 자신의 이력에 도움이 되지 못한 것은 자기 능력이 부족해서이고, 외국어 실력이 잘 늘지 않는 것 또한 자신이 게을러서라고 생각하며, 결국 모든 문제는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매일 출퇴근 하면서 깨달을 뿐이다. 물론 한국에서의 폭력적이었던 직장 경험은 이 상황을 좀더 내적 합리화를 시키는데 훌륭한 밑거름이 되곤 했다.

이들의 노동 현장에서는 대부분 영어 혹은 중국어가 지배적이다. 이 두 언어를 제대로 사용할 줄 모르는 것에서 이들은 노동 시장에서 차별을 받고 가장 하층부의 노동을 하게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노동 현장 내부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고 종종 그것은 차별로 이어진다. 상급자의 지시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거나, 자신의 실수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직원들이 자신의 잘못으로 보고 한다면, 그렇게 오해가 있어도 제대로 설명하거나 항변할 수 없이 많은 경우 묵묵히 그것을 자신의 언어적 능력의 한계라고 깨닫게 된다. 연구 참여자 중 한 명은 특히 그 레스토랑의 주인이 이상한 분노를 표출하고는 하는데, 자신의 목을 탁 때리는 등 신체적 폭력으로 종종 이어져서 어려움을 호소하였다. 자신들의 계약이 잘못되었고 심각하게 노동권이 침해 받았다고 호소하려고 해도 싱가포르의 노동부는 제대로 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아 영어와 중국어만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다. 따라서 이들이 호소를 할 수 있는 곳은 정말로 제한되거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았다. 자신들과 비슷한 조건으로 중국이나 대만 등지에서 온 동료들이 직장내 노동법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 싱가포르의 노동부에 상담을 신청하고 구제를 받는 방식을 보면서 부러워 하지만, 자신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창구가 언어적 장벽 때문에 되지 못한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다.

함께 근무하는 다른 국가에서 온 직장 동료들의 ‘농담’도 이들에게는 어려움 중의 하나이다. 싱가포르는 자국에 필요한 저임금 노동을 해외의 값싼 이주 인력을 한시적으로 받아 들여서 ‘쓰고 되돌려 보내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대부분 인도와 방글라데시,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중국 등에서 물려들고 있다. 따라서 저소득 국가 출신들이 오는 ‘외노자’의 트랙을 아시아에서 가장 잘 사는 국가 출신이 온다는 것은 동료들의 우스갯소리거리가 되거나, 한국 사회에서 살기에 조금 부족한 사람은 아닌건가 하는 의심까지 받게 되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영어를 못한다는 이유로 필리핀 출신의 영어가 유창한 동료들에게 무시를 당하면서, 그 국가의 인종과 소득 수준에 기반한 한국적 인종주의의 위계 서열 속에서 자신의 지위가 급격히 추락함을 느끼고는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이 과정에서 때로는 훨씬더 과격해진 인종주의를 갖게 되거나, 상대방에 대한 혐오를 갖게 되기도 한다.

“싱가포르 손님들이 가끔 물어요. 너 차이니즈야?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싱가폴은 이래서 문제야, 말레이시아에서도 오지 인도네시아에서 오지. 우리 싱가포르 사람들은 일할 곳이 없어 너희들 때문에. 이런 소리 계속 들으면 안그래도 싱가포르 사람들 싫어지고 있는데 그런 얘기까지 들으니 너무너무 실망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여기까지 와서 이런 대접을 받고 살아야 하는 건지... 이런 생각하면 안되는 거긴 한데, 필리핀 애들한테 계속 무시 당하고 있는데요 속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해요. ‘너들 한국 와봐라 다 뒤졌다.’”

이처럼 이들의 이주 노동 경험은 기존에 갖고 있었던 한국적 인종주의가 ‘도전’받는 것이기도 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로 재강화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다. 하지만 이러한 위계서열화는 비단 인종주의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한국 사회가 등급을 매겨서 일정 등급을 계속 탈락 시키는 방식으로 사회를 운영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등수의 위계 서열이 자연스럽게 세계를 이해하는 방식으로 깊숙이 자리잡게 되었듯, 이들의 싱가포르에서의 노동 또한 마음의 위계 서열을 잡아 가게 되는데 그 결정적인 것이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비자 시스템이다.

싱가포르는 이주노동자들에게 엄격한 위계 서열에 기반한 비자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일반 단순 노동직에 부여하는 워크퍼밋 Work Permit (WP)가 있는데, 이것은 일반적으로 저임금 비숙련 노동직에게 부여하는 비자이다. 그 위에 숙련 노동자 집단에게 부여하는 S Pass (SP)라는 것이 있고, 그 위에 전문가 집단에게 부여하는 E Pass (EP)가 있다. 아무리 싱가포르에서 장기 체류를 했더라도 WP를 갖고 있는 사람은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받는데 있어 많은 차별을 받게 된다. 그들은 싱가포르가 ‘시민’으로서 환영할 정도로 훌륭한 인적 자본을 갖고 있지 않아서이다. 동시에 이들 집단은 대부분 자국에서 배우자를 데려오거나 아이들을 데려오는 것이 금지된다. 정부는 소득 수준과 비자 자격에 따라서 배우자와 아이들을 데려올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데, 자녀 양육에 필요한 금액을 지불할 능력이 갖춘자만이 싱가포르에서 아이를 키울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따라서 WP는 싱가포르의 부족한 노동을 아주 값싸게 해외에서 충당하면서, 이들에게 필요한 사회서비스는 최대한으로 감축시킬 수 있는 가장 훌륭한 통로이다. 이처럼 싱가포르의 이주노동자 시스템에서 WP는 먹이사슬의 가장 하층에 존재하게 되고, 그위로 SP와 EP가 자리잡게 되는 것이다.

WP는 단순히 그 사람의 소득이 조금더 낮다거나 전문 기술이 특별히 있지 않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낙인’이기도 했다. 김인호 (1983년생)는 이러한 싱가포르 비자시스템과 이 위계서열 속에서 한국 청년들이 느끼는 위화감과 불안감을 이렇게 말했다.

“수저랑 같아요.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처럼 EP는 능력있는 거, SP는 그냥

보통, WP는 그냥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 거죠. 한국 사람들 내부에서 저 사람이 WP인지 EP인지 SP인지 이런 것도 중요해요. 그 사람이 어떤 비자를 갖고 왔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등급이 보이는 거잖아요. 사람들이 엄청 신경쓰더라구요. 저는 그냥 SP든 EP든 상관 없이 지금 WP어도 월급만 잘 주면 돼요. 어차피 지금 월급은 SP랑 같으니 신경 잘 안써요. 하지만 처음에 와서 WP라고 집주인이 안받는다 고 했을 때, 전화기를 개통하려고 했더니 WP는 800불을 보증금으로 내 놓으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게 정말 사람 등급이자 신용 등급이구나 싶었어요.”

이처럼 위계 서열이 명확한 비자시스템 속에서 싱가포르로 해외 취업을 떠난 청년들은 자신이 받게 된 비자가 가장 하층 그룹에, 그것도 (한국적 기준으로 봤을 때) 가장 인종적으로 서열이 낮은 층에게 부여하는 저임금 육체노동자들을 위한 비자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서는 상당한 상실감을 느끼기도 한다. ‘연수’와 ‘경험’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은 그저 전문 기술도 없고 언어도 제대로 하지 못하며, ‘필리핀 사람’한테도 치이고 있는 가장 하층부의 노동자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중 일부는, 이 비자의 위계서열 사다리 올라타기 게임을 시작한다. WP에서 SP로 그리고 EP로 그 다음은 영주권자나 시민권자로 가는 것을 일종의 ‘계급 상승’의 생존 경쟁으로 생각하고 그 비자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것 자체가 자신의 지위와 위신을 높이는 것이라고 판단, 그 ‘비자 게임’을 목표로 삼는다. 무슨 일과 무슨 공부를 하느냐 상관 없이 대학 서열의 사다리를 올라가는 게임을 해왔던 것과 아주 유사한 게임이다.

#### 7. 결론 -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

해외 취업을 통해서 청년 실업을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해외 취업을 선택한 많은 청년들은 실업과 취직이 문제가 아니라 직장 내에서의 각종 착취와 폭력적인 구조 그리고 자신이 성장할 수 없음을 깨닫고 해외 취업을 결정하게 된다. 하지만 한국 사회에서 90년대 이후 청년으로 성장하는 과정은, 공동체 혹은 사회가 전혀 존재하지 않은 채 무너지는 국가와 노동 시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남는 생존 게임만을 해야했었고 그 과정은 물론 신자유주의적 주체로 성장하는 것을 의미했다. 물론 이 주체의 가장 큰 특징은 모든 것을 자신의 책임으로 기꺼이 받아들이는 것이었다. (서동진 2009, 엄기호 2009). 국가를 등에 업은 에이전시는 청년들을 손쉽게 해외로 ‘팔아버리는’ 것에 가까웠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의 권리와 계약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도 받지 못한 채 청년들은 글로벌 노동 구조의 가장 하층부에 착취 당하기 가장 쉬운 형태에 진입하게 된다. 계약이 잘못됐다는 것도 자신의 착취 당하고 있다는 것도 알지만, 그것은 모두다 본인의 잘못이자 무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착취의 고리와 불법적인 것들에 대해서 자기 설명과 합리화를 하면서 말이다.

자신이 상상했던 코스모폴리탄적 라이프스타일을 갖춘 해외 취업 성공자가 사실상 불가능했다라는 것을 간파하고, 싱가포르의 저임금과 고용주의 횡포, 다른 동료들로부터 오는 스트레스 등에 시달리지만 자신의 어려움을 호소할 곳도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시스템도, 자신의 권리 자체가 무엇인지도 모른 상태에서 해결하기에는 요원하다. 동시에 한국사회에서 경험한 폭력들과 차별 등은 싱가포르에서 처한 착취를 합리화 시키는데 유용하게 쓰일 뿐이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평평한 지구’를 경험하고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한국적으로 혹은 싱가포르적으로 위계질서가 공고히 갖추어진 노동과 사람의 구조속에서 가장 낮은 곳에 위치해버리게 된 자신을 깨닫게 된다.

#### 추가. 정책적 제언

해외 취업이 어쨌든 불가피한 상황에서 서울시 수준에서 다음과 같은 정책을 추진한다면 많은 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1. 해외 취업을 떠난 청년들에게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정부와 관계를 맺고 있는 에이전시들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진행하여, 정부계약에 적극적으로 반영하게끔 한다. 이를 통하여 에이전시들이 책임을 떠넘기고 수수료만 받아 챙기는 행태를 조금이라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2. 해외 취업을 떠나기 전, 각국의 노동법에 대한 소개를 담은 자료들을 만들어 해외 취업을 떠나는 청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그 권리교육을 시켜준다. 우선 간략하게 이해하기 쉽도록 온라인 자료집을 만드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노동법을 자체보다는 계약시 어떤 것들을 조심하고 상습적으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식으로 하는 것이 좋다.

3. 해외 취업을 한 청년들이 해외에서 일을 할 때 자신이 부당하게 착취를 당했거나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상담을 할 때 필요한 온라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예를 들어 싱가포르 청년들이 영어 때문에 싱가포르 노동부와의 상담을 못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일차적으로 서울시 차원에서 싱가포르 정부에 한국어 통역 서비스 제공을 요구하고, 이차적으로는 서울시 차원에서 이들이 응급한 상황에 연락을 했을 경우 인터넷 화상 채팅 등을 통하여 3차 연결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면 많은 청년들이 부당한 상황을 조금이라도 타계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참고문헌

서동진. 2009. 자유의 의지 자기계발의 의지:신자유주의 한국사회에서 자기계발하는 주체의 탄생. 돌베개.

엄기호. 2009. 아무도 남을 돌보지 마라: 인문학의 눈으로 본 신자유주의의 맨얼굴. 낮은산.

장경섭. 2009. 가족 생애 정치경제:압축적 근대성의 미시적 기초, 창비.

조한혜정. 2006. “후기 근대적 위기와 ‘돌봄국가’적 패러다임을 전환을 위한 시론” <사회과학논집> 37(1). 연세대 사회과학연구소.

Constable, Nicole. 2007, Maid to Order in Hong Kong: Stories of Migrant Workers (2nd Edition). Cornell University Press.

Freeman, Caren. 2011. Making and Faking Kinship: Marriage and Labor Migration between China and South Korea. Cornell University Press.

Harion, Yan. 2008. New Masters, New Servants: Migration, Development, and Women Workers in China. Duke University Press.

Min, Sung Kil, Suh, Shin-Young, Song, Ki-Jun. 2009. “Symptoms to Use for Diagnostic Criteria of Hwa-Byung, an Anger Syndrome.” Psychiatry Investig. 6(1)

연합뉴스 2015년 3월 19일. “朴대통령 "한국에 청년이 텅텅 빌 정도로 해달라”

매일노동신문. 2015년 9월 21일. “박근혜 정부 청년 해외취업 지원사업 ‘유명무실’”

6

청년, 해외, 노동: 워킹홀리데이 관련 재현물 텍스트 분석을 중심으로  
우승현 황해정

